

# 퇴보한 ESG...광주·전남 상장사 절반 이상 '낙제점'

<환경·사회·지배구조>

## ■ 광주전남 상장기업 ESG 등급 추이

	2021	2022	비교
다스코	B	D	-2
화천기공	B	D	-2
조선내화	B	D	-2
다이나미디어	C	D	-1
대유에이텍	C	D	-1
부국철강	C	D	-1
보해양조	C	D	-1
광주신세계	A	B+	-1
대유플러스	C	D	-1
금호에이치티	C	D	-1
한국전력	B+	B	-1
DSR제강	C	C	-
우리금융	B	B	-
금호타이어	B+	B+	-
금호건설	C	C	-
한전KPS	B	A	2
오이솔루션	B	C	-1
박셀바이오	-	D	-

<자료:한국ESG기준원>

### 18개 상장사 중 10곳 'D등급'...한전KPS 두 단계 상승해 A등급 근로자 사망 '한전'·아이파크 사고 'HDC'...사회(S) 등급 하락

올해 광주·전남지역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6개사의 절반 이상(56.3%)이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ESG 경영 평가에서 낙제점인 'D등급'을 받았다.

이는 전국 유가증권 상장사들의 D등급 비율 33.2%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한국ESG기준원(KCGS)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ESG 평가 및 등급'을 발표했다. 올해 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이었던 광주·전남 상장기업 18개사 가운데 55.6% 비중을 차지하는 10개사는 가장 낮은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유가증권 상장사 16개사 중 D등급은 56.3%에 달하는 9개사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ESG기준원이 올해 평가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72개사 가운데 D등급이 차지하는 비율 33.2%(256개사)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ESG 통합등급은 수준에 따라 S, A+, A, B+, B, C, D 등 7단계로 부여된다.

S등급과 A+등급을 받은 상장사는 지난해에 이어 광주·전남에서 전혀 없었다.

등급별로 보면 A등급은 지난해보다 두 계단 오른 한전KPS가 유일했다.

이어 B+등급 2개사, B등급 2개사, C등급 3개사, D등급 10개사 등의 성적을 거뒀다.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평가를 받은 17개사 가운데 D등급은 한 군데도 없었지만 올해는 평가 모형 개정의 영향으로 무려 10개사가 D등급을 받았다.

전년보다 등급이 오른 법인은 한전KPS(B→A)가 지역에서 유일했다.

지난해와 성적이 같은 상장사는 금호타이어(B+), 우리금융(B), 금호건설(C), DSR제강(C) 등 4개사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 12개 상장법인은 지난해보다 성적이 내려갔다.

성적이 크게 악화된 곳은 B등급에서 D등급으로 2계단 하락한 다스코, 화천기공, 조선내화 등 3개

사이다.

지난해 지역 상장사 가운데 유일한 A등급에 올랐던 광주신세계는 지배구조 부문 등급이 A에서 B+로 내려가면서 통합등급도 A에서 B+로 한 단계 하락했다.

올해 근로자 사망사고와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한 한국전력은 사회(S) 등급이 B+에서 B로 내려가며 통합등급도 B+에서 B로 하락했다.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통합등급이 C에서 D로 한 계단 하락한 곳은 대유에이텍, 대유플러스, 금호에이치티, 부국철강, 보해양조, 다이나미디어인 등 6개사이다. 코스닥 상장사인 오이솔루션은 지난해 B등급에서 올해 C등급으로 한 계단 내려갔다.

올해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외벽이 붕괴해 근로자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사회 등급이 B에서 C로 내려갔지만 통합등급은 C등급으로 전년과 같았다.

비상장사인 광주은행은 지배구조(G) 부문 등급이 A에서 B+등급으로 한 계단 내려갔다. ESG기준원은 비상장 금융회사 58개사에 대해서는 지배구조만 평가했다.

한편 국내 상장사 가운데 S등급은 없었고, A+등급 상장사는 지난해 14개사(1.8%)에서 올해 5개사(0.6%)로 줄었다.

A+등급을 받은 기업은 KB금융지주, SK, SK케미칼, 신한지주, 지역난방공사다.

A등급(171개사→116개사), B+등급(136개사→124개사), B등급(211개사→76개사), C등급(221개사→195개사)을 받은 회사는 줄어든 반면 D등급을 받은 회사는 12개사(1.6%)에서 256개사(33.2%)로 급증했다.

부정적인 ESG 현안을 반영하는 심화 평가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한 기업을 중심으로 총점이 하락하고, 등급도 하락된 영향이다.

한국ESG기준원은 "기후위기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사 등 환경경영 현안을 전사적 전략으로 도입한 기업에서는 모형 개정의 영향이 적었다"며 "일반 상장사는 지배구조와 사회 면에서 매우 취약한 기업이 많이 증가했다. ESG 등급 상향을 위해서는 기업이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 중심의 ESG 관행을 개선하고 근본적인 ESG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은행, 신임 행장에 고병일 현 부행장 낙점

### 효율적 경영관리 등 능력 적합 자행 출신 행장 시대 이어져

광주은행 제14대 은행장에 고병일(56·사진) 현 부행장이 사실상 선임됐다.

광주은행은 45년 만에 첫 자행 출신으로 은행장에 오른 현 송중욱 행장에 이어 자행 출신 행장 시대를 이어가게 됐다.

광주은행은 28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고병일 부행장을 차기 은행장 후보로 확정했으며 조만간 열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JB금융지주 자회사 CEO후보추천위원회는 은행장 후보로 송 현 행장과 고 부행장을 후보로 결정했으나 송 행장이 용퇴함에 따라 단수 후보로 추천됐다.

광주은행은 고병일 행장 후보가 경영과 기획, 자금 등 금융업 전반에 대한 근무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경영관리, 지역경제 발전 기여 등 최고 경영자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고 행장 후보는 지난 1991년 광주은행에 입행해 32년간 근무하며 은행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쌓았다.

임방울대리지점장과 개인영업전략부장, 종합기획부장, 2019년 영업1본부 부행장 등을 거쳐 경영기획본부(CFO) 겸 자금시장본부 부행장으로 재임 중이다.

그는 원만하고 합리적이며 소탈한 성격의 소유



자료 직원 신상이 두터운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계 전반에 형성된 넓은 인맥을 기반으로 지역 내 영업기반 확충과 중소기업,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지역밀착 경영을 강화할 책임자로 꼽힌다.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2년이다.

자행 출신 첫 은행장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와 함께 후배들을 위해 용퇴를 한 송중욱 행장은 JB금융지주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제주항공, 무안발 국제선 재개

###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베트남 다낭 등 4개 노선

제주항공은 무안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4개 노선을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운항한다고 28일 밝혔다.

관광목적 전세기로 태국 방콕, 일본 오사카, 베트남 다낭, 나장(나트랑) 등 4개 노선을 운항할 예정이다.

우선 12월1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무안-방콕 노선을 주 2회(수·토요일) 일정으로 운항한다.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25일까지 주 3회(월·수·토요일) 일정으로 무안-오사카 노선을 운영하고, 주 2회(목·일요일) 일정으로 무안-다낭 노선을 운항한다.

내년 1월3일부터 3월3일까지 주 2회(화·금요일) 일정으로 운항 예정인 무안-나장 노선도 비행기를 띄운다.

제주항공은 2019년 한 해 동안 무안공항을 기점으로 도쿄, 오사카, 타이베이, 방콕, 세부, 다낭 등 총 16개 도시를 운항했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중단했었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기준 무안공항을 이용한 여행객 68만7000여명 중 약 78%인 54만2000여 명이 제주항공을 이용했다.

무안-방콕 노선은 6만3000여 명, 무안-오사카 7만1000여 명, 무안-다낭 11만7000여 명 등이 이용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조리명장 손맛 느껴보세요" 28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에 새로 문 연 '마스터룩' 매장의 대한민국 조리명장 이상정 요리사가 즉석에서 만드는 반찬과 가정간편식, 도시락, 김치 등 500여 가지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08.27 (-29.59)	↑ 금리 (국고채 3년)	3.669 (+0.025)
↓ 코스닥	717.90 (-15.66)	↑ 환율 (USD)	1340.20 (+16.50)

# 토지 매매 (담양)(장성)

## 경매교육 [특수 전문반]

### ▶ 담양 프로방스 앞 (7,500평)

### ■ 임야 : 7,500평

### ■ 1차 허가 완료, 개발토지, 최고 위치

- ① 담양 창평면 - 9,000평 ( 계획관리)
- ② 담양 무정면 - 1,200평 (1종주거지역)
- ③ 장성읍 상오리 (장성댐) 전원주택 (150평)
- ④ 장성읍 야은리 (황룡강면) 전원주택지 (200평)
- ⑤ 장성읍 야은리 전원주택 2층 - 2억3천

### \*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 경매 물건 추천 ◀

서구중앙동 (상가주택) ▶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4억6천
광산구 수완동(운솔의아침)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3억5천
북구 삼각동 (어린이집) ▶	감정가 7억1,100 → 최저가 3억2천
북구 신안동 (공장) ▶	감정가 13억 → 최저가9억2천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4,500 → 최저가16억
광산구 우산동 (근린상가) ▶	감정가 5억 → 최저가 2억8천
영암군 심호읍 (숙박시설) ▶	감정가 20억 → 최저가 7억
장성읍 안평리 (농지)▶	감정가 17억 → 최저가 12억

## 010-6670-9800

## 010-2614-9801